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에서의 ‘영웅의 코드’와 ‘행위패턴’*

최 원 오**

[초 록]

본 논문은 몽골의 대표적 영웅서사시 「장가르」 속 ‘영웅의 코드’와 ‘행위패턴’을 논의한 것이다. ‘영웅의 코드’는 영웅이 갖춰야 할 정신 및 행동 규범을 뜻하며, 행위패턴은 행위자(영웅)의 일정한 행위 형태를 뜻한다. 「장가르」 속 ‘영웅의 코드’는 명성, 본분, 인정, 경쟁심 등으로 다양하며, 행위패턴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행위 형태로 나타난다. 대개의 영웅서사시는 한 명의 영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영웅의 코드’가 단일하게 나타나게 마련인데, 「장가르」에서의 ‘영웅의 코드’가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장가르, 흥고르, 사와르 등 다수의 영웅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장가르」 속 영웅들은 군주 장가르가 통치하는 봄바국의 정치 체제 속에 놓여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군주 장가르의 명령에 따른, 즉 타의적 행위패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턴을 보여주지만, 때로는 개별 영웅의 의지에 따른 자의적 행위패턴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장가르」 속 영웅의 정신 및 행동 규범을 뜻하는 ‘영웅의 코드’가 국가와 개인에 중첩되어서 작동되는 것임을 말해 준다. 또한 영웅들의 ‘영웅의 코드’는 단일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 수평관계, 순환관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두루 작동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장가르와 관련된 명성, 본분, 인정 등은 수직관계 속에서, 홍고르와 관련된 명성은 수직 및 수평관계 속에서, 경쟁심은 장가르와 그의 휘하 용사 모두에게서 수평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또한 장가르의 명성은 순환관계 속에서도 파악되는데, 이는 ‘술잔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술잔치는 장가르와 봄바국의 명성을 사방에 널리 전파시키는 방식인데, 「장가르」의 대부분 마당이 ‘술잔치 — 정복전쟁 — 술잔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가르의 명성은 전후의 술잔치를 통해 전쟁이 없는 평화 및 전쟁 후의 승리를 기념하는 순환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확산되는 식이다. 이처럼 「장가르」 속 ‘영웅의 코드’는 다양성과 위계성을 특징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행위패턴도 그에 따라 자의적인 행태, 타의적인 행태로써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장가르」는 ‘영웅에 대한 영웅이야기’라고 할 만큼, 영웅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1. 머리말: ‘영웅’에 대한 ‘영웅이야기’ 연구의 방향

몽골 토울(tuul: ‘몽골의 서사시’라는 뜻의 서부몽골어) 중의 하나인 「장가르」는 흔히 티베트의 「게사르」, 키르기스의 「마나스」와 함께 중국의 ‘3대 구비영웅서사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중 몽골이나 키르기스는 독립국가로써도 존재하지만, 티베트와 함께 56개 중국 소수민족을 구성하는 민족으로써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명명은 중국의 소수민족 통치정책의 관점에서 고안된 문화적 상상력일 뿐, 개별 민족 단위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 영웅서사시 각각은 민족시학(民族詩學)을 구성하는

주요한 작품들이다. 「베어울프」가 게르만 민족의 영웅상을 대표해 주는 영웅서사시로 잘 알려져 있듯이¹⁾, 「장가르」는 몽골 민족, 「게사르」는 티베트 민족, 「마나스」는 키르기스 민족의 영웅상을 대변해 주는 영웅서사시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영웅서사시의 주인공에 투영된 영웅상을 개별 작품으로써가 아니라, 민족학(民族學)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영웅서사시에는 각 민족마다 영웅이 갖춰야 할 정신 및 행동 규범, 즉 ‘영웅의 코드’(heroic code)와 그에 따른 행위자(영웅)의 일정한 행위 형태, 즉 ‘행위패턴’(behavior pattern) 등이 투영되어 있다는 시각으로 우리의 연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때문이다. 영웅서사시에 투영된 ‘영웅의 코드’와 그에 따른 행위자의 ‘행위패턴’에 대한 논의는 일차적으로는 작품 분석의 일환이 되지만, 이차적으로는 영웅서사시를 전승하고 있는 해당 민족의 정신 및 행동 규범을 구명하는 데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작품 분석의 차원에서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 속 ‘영웅의 코드’와 그에 따른 ‘행위패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관점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볼 때, 아직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몽골 토올에 대한 최근의 박사논문²⁾에 의하면, 몽골에서는 주로 「장가르」의 판본을 집대성하는 한편, 몽골 문자에서 키릴문자로 전사하는 작업, 「장가르」를 통해 토올의 기원을 탐구하는 작업, 「장가르」의 작품 내용 및 연행지들에 대해 탐구하는 작업, 「장가르」의 이본들을 비교 고찰하는 작업, 「장가르」의 유형을 탐구하는 작업 등이 행해졌고, 유럽에서는 「장가르」의 일부 마당이 독일어나 러시아

1) 「베어울프」에는 게르만 민족의 ‘comitatus’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comitatus’는 “‘勇士團’의 일원으로서 군주에게 충성해야 하며 또한 군주는 이에 보답해야” 한다는 정신을 말한다. 김석산 역(1976), 『베오울프 외』, 서울: 탐구당, p. 16.

2) 노로브납(2019), 「몽골구비서사시 토올의 문학적 성격과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연구」, 고려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 민속학전공 박사논문, pp. 4-19.

아어로 번역되어 출판되는 한편, 서몽골과 칼무크의 「장가르」 비교를 통해 지역별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 <게사르>와의 관련성을 구명하는 작업 등이 행해졌고, 중국에서는 「장가르」 조사, 채록, 중국어로의 번역³⁾ 작업, 「장가르」 연행자들에 대해 탐구하는 작업, 「장가르」 원전의 중국 내 변용을 탐구하는 작업, 신장(新疆) 지역 「장가르」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분석하는 작업 등이 행해졌고, 한국에서는 「장가르」를 통해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의 구축을 시도한 작업⁴⁾, 「장가르」의 영웅적 성격 분석을 통해 몽골 민족의 역사, 정치조직, 토착신앙과 중세 보편종교의 관계 등을 검토한 작업, 토울의 범주에서 그 음악학적 성격을 탐구한 작업, 몽골 영웅서사시라는 갈래적 범주에서 그 서사 전개가 판타지 문학 및 인터넷 매체문학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작업, 「장가르」의 한국어 번역 작업⁵⁾ 등이 행해졌다. 「장가르」에서의 ‘영웅의 코드’와 ‘행위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가르」에 투영된 영웅의 규범적 면모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시도하는 작업은 시론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웅서사시를 이해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작품의 주인공인 영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웅에 투영된 해당 민족의 규

3) 黑勒·丁師浩 譯(1993), 『江格爾』 第一冊, 烏盧木齊: 新疆人民出版社; 黑勒·丁師浩 譯(1993), 『江格爾』 第二冊, 烏盧木齊: 新疆人民出版社; 黑勒·丁師浩 譯(1999), 『江格爾』 第三冊, 烏盧木齊: 新疆人民出版社; 黑勒·丁師浩 譯(1999), 『江格爾』 第四冊, 烏盧木齊: 新疆人民出版社.

4) 최원오(2003),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I) —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를 중심으로 —」, 『구비문화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화학회, pp. 497-524.

5) 칼미크-오이아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유원수 주해, 『장가르 1』, 서울: 한길사; 칼미크-오이아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유원수 주해, 『장가르 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칼미크-오이아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8), 유원수 주해, 『장가르 3』,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범을 파악하는 작업은 「장가르」의 심층적 이해뿐만 아니라, 여타의 영웅 서사시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영웅서사시의 전형적 구조 외에도 ‘영웅의 코드’에 따른 ‘행위패턴’의 구조를 논의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각 민족의 영웅서사시 구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웅의 코드’와 사건 전개에의 양상

「장가르」의 서술구조는 전반적으로 ‘술잔치 — 정복전쟁 — 술잔치’로 되어 있다. 정복전쟁 전후로 ‘술잔치’가 서술되고 있어 ‘술잔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후자의 잔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서사시가 공연되는 것과 상관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⁶⁾ 또한 「장가르」속 모든 잔치는 “오이라드 민중이 부적합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를 상상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⁷⁾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장가르」 서사시의 외적 맥락, 즉 「장가르」를 전승시켜 왔던 집단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견해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서사시의 내적 맥락을 고려하면 다소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술잔치 — 정복전쟁 — 술잔치’의 전형적 서술구조로 전개되어 있는 「올란 홍고르가 알라 몽홀라를 붙잡은 마당」을 예로 들어 보자. 전반부의 술잔치에서는 장가르와 그의 용사들이 ‘가장 멋지고 즐거운 아르자술자리’를 즐기고 있을 때에 외방의 사신이 와서 장가르의 붉은 절따 불

6) 서대석(1999), 「동북아시아 영웅서사문학의 대비 연구」,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210.

7) 김민아(2016),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에 나오는 ‘잔치’의 양상과 의미」, 『문학과 종교』 제21권 1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p. 81.

친 말을 몰아가려고 왔다는 내용⁸⁾을, 후반부 술잔치에서는 아르자, 호르조 술자라가 무르익었을 때에 퀴데 가르타 사와르가 일어나 포로 몽홀라의 뺨에 봄바 나라의 국새(國璽)를 찍고서 장가르의 신민이 될 것과 매년 조세를 바칠 것을 명한 후 돌려보낸다는 내용, 이어서 영예로운 장가르의 술하에서 편하고 아름답게 즐기며 살았다는 내용⁹⁾을 서술하고 있다. 두 부분을 모두 고려하면, ‘술잔치’는 장가르의 신민들이 전쟁이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표지임을 알 수 있다. 장가르의 신민들이 즐거운 술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외방의 사신이 와서 위협적인 말을 전함으로써 술잔치가 중단되었다가 그 위협이 완전하게 해소되자 곧바로 즐거운 술잔치가 재개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서사시의 내적 맥락에서만 보자면, 「장가르」에서의 ‘술잔치’는 전쟁과 강하게 결부되어 제시되고 있는 서술 장치인 셈이다.

그런데 술잔치와 술잔치 사이에 놓여 있는, 영웅의 성공적 정복전쟁 수행만이, 장가르 신민들의 ‘즐거운 술잔치’의 재개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정복전쟁 수행자로서의 ‘영웅의 코드’, 즉 영웅의 정신 및 행동 규범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웅이 추구하는 정신 및 행동 규범이 야말로 ‘즐거운 술잔치’를 다시 벌일 수 있게 하는, 달리 말하자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 신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장가르」에서의 술잔치는 전쟁과 평화의 순환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장가르」를 구성하는 몇 개의 마당을 임의적으로 선별하여 ‘영웅의 코드’와 그에 따른 사건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사건 전개의 양상은 개별 영웅들의 ‘영웅의 코드’가 어떻게 사건을 추동시키

8)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p. 217-218.

9)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p. 230-231.

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가르」 속 영웅들 중 정복전쟁을 주로 수행하는 흥고르, 사와르, 사날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영웅의 코드’는 영웅의 정복전쟁에서 구체적으로 작동되는데, 「장가르」에서는 이들이 주로 정복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가르」는 영웅 간의 수직관계, 수평관계 등에 따라 ‘영웅의 코드’가 달리 작동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3장에서의 본격적 분석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 3명의 영웅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장가르는 여러 영웅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3장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2.1. 「오트 차간 망가스를 장가르가 타도하는 마당」¹⁰⁾

이 마당에서 ‘영웅의 코드’로써 해석될 수 있는 요소는, 적장에 대한 흥고르의 호언장담 및 용맹성에서 확인된다. 「장가르」의 전 마당에서 흥고르는 술주정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호언장담을 곧잘 하는 영웅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호언장담’은 흥고르가 다른 영웅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왜 특별한 영웅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흥고르가 술주정에 힘입어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라고 두 개의 행위를 인과관계로 연결시켜서 판단해볼 수도 있겠지만, 「장가르」의 전 과정에서 흥고르가 장가르의 용사들 중 가장 용감무쌍한 영웅으로 일관되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언장담의 실제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용맹성은 흥고르의 ‘영웅의 코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지이다. 영웅은 그 어느 적에게도 굴하지 않는 용맹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 흥고르는 그러한 코드를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영웅인 것이다.

흥고르는 술잔치에서 “나의 꾀के 갈잔에게 / 따라잡히지 않고 이길 준

10)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엮음(2016), pp. 39-124.

마가 있으면”, “나의 사내다운 몸에 잡히지 않고 / 이기고 갈 사내가 있으면”¹¹⁾ 알려 달라고 호언장담을 한다. 약간의 과장이 섞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술잔치에서 홍고르 외의 영웅들은 이러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홍고르의 영웅적 용맹성을 과시하여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알탄 체지가 홍고르의 호언장담에 오토 차간의 사자 올린 샤라 비르맨이 홍고르를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가겠다고 봄바의 나라에 접근해 온다고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홍고르는 “사내대장부의 죽음은 / 아무도 없는 광막한 황야에서”¹²⁾라며 비장하게 말한 후 아르자 술 72잔을 연거푸 마시고 문을 박차고 나와 샤라 비르맨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는 샤라 비르맨을 만나 자신의 몸에 사슬을 채워 끌고 가겠다고 말을 직접 들은 후 조롱 섞인 웃음을 짓는다. 적장에 대해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조롱조로 상대를 깔보며 자신의 용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홍고르는 21일 동안 샤라 비르맨과 혈투를 벌이다가 마침내 패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용맹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장가르의 35 용사 중의 한 명인 사와르와 비교해 볼 때 명확하게 확인된다. 장가르가 홍고르를 구출하기 위해 출정을 결정하자 사와르는 자신의 말이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그 출정 행보에 나설 수 없다는 말을 장가르에게 전한다. 그러자 장가르는 “나의 봄바의 홍고르가 / 남의 손에 들었다고 하는데, / 제 말이 다리를 전다고 하는 / 나쁜 놈! 너를!”¹³⁾이라고 분개하며 홍고르를 구출해 온 후 사와르라는 이름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한다. 이에 사와르는 장가르의 진노를 억누르기 위해 곧장 자신의 말을 타고 장가르를 앞질러 가서 샤라 비르맨에게서 홍고르를 구출해 낸다. 이처럼 사와르는 도끼와 사슬로써 샤라 비르맨의 목뼈를 15번 때려 도망

11)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p. 89-90.

12)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 91.

13)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 109.

가게 할 만큼 무예 실력은 뛰어나다. 그렇지만 「장가르」의 전편(全篇)에서 홍고르의 용맹성은 수없이 반복되어 묘사되지만, 사와르가 보여준 것과 같은 무예 실력의 우월성이 용맹성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써 찬미되지 않는다. 「장가르」에서 영웅성을 규정짓는 코드로써 무예 실력보다 용맹성이 더 가치 있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홍고르가 단지 용맹한 용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전투에 뛰어 들었을까를 따져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다. 홍고르는 그가 최고로 용맹한 용사라고 자부한 터이므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행위를 해야 할 것인데, 아무런 계기도 없이 그걸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홍고르의 자부심을 자극할 계기가 요구되는 것인데, 이 마당에서는 샤라 비르맨과 알탄 체지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알탄 체지가 홍고르의 자부심을 자극할 만한 예견, 즉 샤라 비르맨이 홍고르를 잡으러 올 것이라고 예견함으로써 비로소 홍고르는 그의 용맹성을 발휘하게 될 명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면에는 홍고르가 자신이 가장 용맹하다는 호언장담이 여러 용사들로부터 부정되는 것을 싫어하였다는 감정이 숨겨져 있다. 그렇다면 샤라 비르맨을 제압하기 위한 홍고르의 출정은 자신이 가장 용맹하다는 명성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자신이 가장 용맹하다는 명성에 연연해하지 않았다면, 굳이 죽음을 각오한 출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말은 비록 호기 있게 하였어도 자신의 용맹과 관련한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사와르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홍고르의 경우 ‘영웅의 코드’는 궁극적으로 ‘용맹하다는 명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으며, 그에 따라 ‘영웅의 용맹성을 과시하는 호언장담 — 영웅의 용맹성에 도전하는 사건의 발생 — 전투(성공 또는 실패) — 적장 및 적장이 소속된 나라의 정복’ 순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2. 「대단히 붉은 흥고르가 흥명한 노랑 망가스 임금을 산 채로 붙들어 데리고 오는 마당」¹⁴⁾

이 마당도 흥고르의 호언장담과 정복전쟁이 주요 내용을 구성한다. 다만 술잔치 석상에서 장가르에 대한 노랑 망가스의 옛 원한과 다짐이 소개되고, 이어서 노랑 망가스의 사자 독신 뷔르케드가 와서 장가르의 부인 게렌젤 하탄, 장가르의 준마 아란잘 제르데, 붉은 용사 흥고르, 여섯 해의 조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알탄 체지의 예견이 소개된 다음에 서술된다. 알탄 체지의 예견에 장가르가 용사들 중 누가 노랑 망가스 임금을 잡아오겠느냐고 묻자, 흥고르가 “쏟아도 한번 왈각할 피 아납니까? / 빛이 바래서 가는 것은 한 움큼뿐인 뼈 아납니까?”¹⁵⁾라며 자원하여 전투에 나설 의지를 내비친다. 이에 알탄 체지가 혼자서 수만 군대를 어찌할 것이냐고 묻자, 잡아오지 못하면 주군의 처결에 따라 죽어 “지옥의 바닥에서 / 내리 천년을 / 나오지 않고”¹⁶⁾ 누워있겠노라고 비장하게 대답한다.

그런데 이 마당에서는 흥고르의 이러한 용맹성이 다소 변형되어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흥고르는 노랑 망가스 임금을 포박하여 봄바의 나라로 오는 동안 노랑 망가스 임금의 70만 추격대에 맞서 홀로 사투를 벌인다. 넓은 몸을 펴보지도 못하고, 목이 말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도 못하고, 굶주려도 만족스럽게 먹지도 못하고, 내리 아홉 달을 쉬지도 못한 채 계속 전투를 하는 동안¹⁷⁾ 그의 붉은 얼굴은 잿빛이 되고, 그의 몸은 상처에 상처가 덧나 고름과 피가 흐른다.¹⁸⁾ 그럼에도 아무도 자신을 원조하

14)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p. 249-326.

15)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 263.

16)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 264.

17)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 304.

18)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 295.

러 오지 않자 흥고르는 원망을 표시하기에 이른다. 특히 ‘오지 않은 아흔 아홉 해와 지나간 아흔아홉 해’를 낱낱이 아뢰어 말할 수 있는 알탄 체지라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장가르에게 얘기해서 반드시 원조하러 왔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건대 알탄 체지가 자신을 사지(死地)에 그냥 내버려두도록 했다고 판단하여, 그 원망의 초점을 알탄 체지에게 두게 된다. 그리하여 흥고르는 알탄 체지의 “여덟 대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 울리는 너의 가슴을 박살 내고 / 말하는 혀를 안 끊게 되면, / 현생에서 주군 장가르의 / 노염과 맞닥뜨려 죽겠다!”¹⁹⁾고 생각한다. 설혹 장가르의 노염을 사게 되더라도 알탄 체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인 것이다. 「장가르」의 전편에서 흥고르의 씩씩하고 거칠고 억센 용맹성은 대부분 적을 향하여 발현되는 것이지만, 지극히 당연하게 이뤄져야 할 일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내부로 향하여도 발현되는 것이다.

이 마당에서 본분(本分)을 지키지 않는 내부자에 대해서도 그의 씩씩하고 거칠고 억센 용맹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용맹성이라는 것은 내외부자에 공히 적용되는 ‘영웅의 코드’임을 알 수 있다. 즉 ‘영웅의 코드’로써의 용맹성이라는 것은 적과의 전투에 임했을 때 영웅이 보여주어야 할 씩씩함, 날렵, 거침, 억셈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행하지 않는 내부자에 대해서도 씩씩하고 거칠고 억세게 대항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에 용맹성을 발휘해야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흥고르의 경우 명성과 본분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마당에서는 ‘봄바 나라의 태평을 위협하는 사건의 발생 — 영웅의 용맹성을 과시하는 호언장담 — 전투(성공 또는 실패) — 본분을 다하지 않는 내부자에 대한 용맹성의 발휘’의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다만 마지막의 사건은 실천적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내적 원망과 다짐의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이는 영웅의 용맹성이 ‘마땅히 그

19)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엮음(2016), pp. 305-306.

래야 할 것'에 발휘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다. 「장가르」의 전편에서 내부자들 간의 전투는 결코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2.3. 「독신 하라 사날이 힘센 망가스의 고장을 파괴하고, 장가르의 가르침에 들게 한 마당」²⁰⁾

하라 사날은 홍고르만큼 비중 있는 영웅은 아니지만, 장가르를 보좌하는 주요 영웅 중의 하나이다. 「장가르」에는 12명의 보동과 6,012 용사가 등장하는데, 홍고르나 사날처럼 12명의 보동만 고유한 이름으로써 호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두 마당에서의 홍고르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장가르」에서의 ‘영웅의 코드’가 단순하지 않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홍고르는 자신의 용맹성을 과시하기 위해 호언장담을 일삼는 편이다. 그에 비해 하라 사날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올란 홍고르가 에흐 독신 망나 임금을 다히고 주군 성주 장가르에게 들여준 마당」에서 홍고르 역시 장가르의 명령을 거절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홍고르는 스스로의 위신과 격을 지키기 위해 그에 합당한 처사를 원하면서 거절한 것인 데 비해, 사날은 적장과의 전투를 통해 자신의 용맹성을 과시해 보도록 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스스로 거부한 것이어서, 장가르의 명령에 대한 둘의 대응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응 시의 내용을 보면, 사날의 경우 공덕이 원만한 아버지를 버리고, 부처님처럼 훌륭한 어머니를 버리고, 아름다운 부인을 버리고, 십만 호 속민도 버리고, 보랏 갈찬 말을 타고서 장가르를 따른 것이었는데, 흠뻑이라고 자신을 흑사시켜 가며 사지에 내보내느는 것은 아닌가 하는²¹⁾, 소위 눈물 섞인 하소연을 한다. 이런 사날

20)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엮음(2011), pp. 305-337.

의 대응은 전쟁에 참여하여 그 용맹성을 과시해야 할 영웅의 모습과는 한참 다른 모습이다. 특히 흥고르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다.

그렇다면 사날은 영웅일까. 이런 모습만 보아서는 전혀 영웅의 축에 든다고 말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장가르가 진정한 격려와 함께 재차 화친과 전쟁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주고, 알탄 체지가 추켜 주는 말을 하자 비로소 그 태도를 바꾼다. 말하자면 ‘영웅의 코드’로 해석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날이 자기보다 훨씬 힘이 있는 용사를 골라 대신 심부름꾼으로 보내라고 울며 하소연하자, 장가르는 10개의 흰 손가락으로 사날의 귀밑 은빛 나는 고수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를 흘뭉미라고 해서/ 내가 너만 혹사”²²⁾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위로한다. 그러자 72잔의 술을 연속해서 마시고서 흥고르가 자신의 용맹성을 과시할 때 곧잘 하는 말, 즉 “빛이 바래서 가는 것은, / 여덟 개의 내 긴뼈일 뿐, / 쏘고 가는 것은 / 한 그릇 내 피일 뿐”²³⁾이라고 말하며 죽음을 각오한다. 이어서 알탄 체지가 사날을 “나와 같이 지혜롭고 / 킨테 가르타 사와르와 같이 큰 도끼의 명수이고 / 아르슬랑의 위용 올란 흥고르와 같은 의지가 있고 / 우주의 미남 밍안과 같이 주의 깊은”²⁴⁾ 사내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사날은 영예로운 장가르의 분부를 받아 출정한다고 말하며 곧바로 보탈 갈 잔 말을 끌고 나간다. 장가르가 자신을 진정성 있게 대해 주고, 알탄 체지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자 사날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보자면 사날을 대변해 주는 ‘영웅의 코드’는 주군과 자신보다 힘 있는 자(여기서는 알탄 체지)로부터의 인정이라고 할 것이다.

21)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p. 305-306.

22)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306.

23)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p. 308-309.

24)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309.

이후 사날은 쿠티데르 자린 잔 테제 대결에 들어가 신분을 숨기고 술잔 치에 참여하여 장가르의 통첩을 퍼뜨린다. 그 과정에서 적장 오돈 차간 이 흥고르와 자신을 비교하는 질문을, 고난 하라가 쿠티데르 가르타 사와르와 자신을 비교하는 질문을, 오돈 하르가가 하라 사날과 자신을 비교하는 질문을 하자 사날은 흥고르, 사와르, 사날 모두 질문한 자들보다 더 큰 위엄과 능력이 있다고 대답한다. 사날은 통첩을 퍼뜨리기 전에 적진의 용사들이 장가르의 용사들에 비해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²⁵⁾을 간파하고 있었지만, 적진의 용사들을 위협하는 언사를 늘어놓은 것이다. 특히 자신과 관련하여서는 대답 중에 신분을 드러내기조차 한다. 즉 통첩의 내용 중 쿠티데르 자린 잔 테제 임금이 화친에 불응 시 자신이 직접 행할 대을 대답한 것이다.²⁶⁾ 이처럼 사날은 자신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자신의 영웅적 능력을 인정해 준다면 용맹성을 당차게 드러낸다.

물론 홀로 추격자들과 전투에 임하는 동안 눈물을 뿌리며 영예로운 통치자 장가르를 부르며 우는 한편, 알탄 체지가 “이제까지 어째서 아니 예언을 하는 것일까?”²⁷⁾ 하며 다시 울기도 한다.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죽음을 불사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앞서 검토한 마당에서 흥고르에게서도 파악된 것이었다. 흥고르도 죽음을 불사하고 출정하여 홀로 전투를 하는 동안 알탄 체지가 왜 예언을 하여 자신을 도와주도록 하지 않는가 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흥고르는 알탄 체지가 예견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장차 알탄 체지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였던 데 비해, 여기서의 사날은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알탄 체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흥고르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사날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장가르」의 전편을 보면, 흥고르는 알

25)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321.

26)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325.

27)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332.

탄 체지와 동급에 위치하지만 사날은 흥고르나 알탄 체지보다는 밑에 위치한다. 이는 영웅들 간, 특히 같은 편이 무리에 속해 있을 때에는 그 등급이 영웅의 언행을 제약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 같은 편이 영웅들 간에는 그 등급에 기초하여, ‘영웅의 코드’로써 본분에 대해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날이 자신을 구원하러 오는 쿤데 가르타 사와르를 보고 나중에 술잔치에서 “목숨을 꺾고 있었던 네 몸을 / 내가 제일 먼저 가서 혼자서 구했다!”고 / 내게 건방을 떠는”²⁸⁾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다시 전투에 임하게 된다는 내용은 그러한 태도에 대한 추정의 단서가 된다. 「장가르」에서 사날과 사와르는 동급에 있는 영웅들이다. 때문에 비슷한 서열에 있는 영웅들 간에는 서로 그 우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쟁심이 발동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보면 자신보다 정치적으로 위에 있는 주군이나 그 능력에 따른 서열상 위에 있는 영웅에게는 인정이나 보살핌을, 서열상 동급에 있는 영웅에게는 자존심에 상처 받지 않고, 서로 상대에게 굴복되지 않으려는 경쟁심이 ‘영웅의 코드’로써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여기서는 사건이 ‘영웅의 용맹성을 과시하라’는 주군의 명령 — 명령에 대한 항의 — 용맹성에 대한 주군 및 상급 서열자의 인정 — 전투(성공 또는 실패) — 상급자의 관심 촉구 또는 동급자에 대한 경쟁심 발로’로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2.4. 「쿤데 가르타 사와르가 독신 킬간(흥명한 칼날) 임금을 장가르의 가르침에 들게 한 마당」²⁹⁾

사날이 사와르에 대해 경쟁심을 보였듯이. 이 마당에서는 사와르가 흥

28)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1), p. 334.

29)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1), pp. 339-353.

고르에 대해 경쟁심을 보인다. 독신 킬간 임금의 사신 보딘 올란이 장가르에게 와서 장가르의 부인 샤프달, 장가르의 애마 아란갈 제르데, 총신 밍얀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응 시 7만 군사로 에워싸겠다고 말한다. 이에 흥고르는 보딘 올란에게 “당대의 유일한 장가르가 / 온전하고 완벽한 몸으로 있으면서 / 남에게 복속되어 주었다고 할 / 명예롭지 못한 못난 이름은 / 애그르 하라 샘의 기슭에서 / 한 그릇 피를 흘리겠다”³⁰⁾는 말을 전하라고 하며 격하게 반발한다. 장가르를 군주로 모시고 있는 흥고르의 입장에서 볼 때, 장가르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있는데, 봄바국을 남에게 복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된다.

이에 장가르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는 흥고르의 태도를 추켜 주며 “외방에서 사람이 왔는데도 /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이 있었다. / 흥고르와 같은 사내가 전혀 없었다!”³¹⁾고 분부한다. 이에 사와르가 화를 내어 장가르에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텅빌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며 “아르슬랑의 위용 올란 흥고르에 비해서 / 제가 왜 처집니까?”³²⁾라고 말하고서 샤프골의 세 임금에게로 귀순해 버린다. 사와르의 입장에서 볼 때, 흥고르처럼 즉각적 반발만 하지 않았을 뿐, 자신도 흥고르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즉 본분을 다하는 용사임을 얘기한 것이다. 심지어는 “이제 내가 없을 때에 / 내 뒤에서 가서 아소서!”³³⁾라고 말하기조차 한다. 장가르에게 만약 자신과 같은 존재가 없다면 장가르의 나라는 결코 지탱되지 않을 거라는 항변이다.

사와르의 이러한 언행은 맹서를 다짐한 주군 장가르에 대해 자못 무례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사와르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군 장가르가 흥고르의 능력만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못내 못마

30)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341.

31)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342.

32)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342.

33)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345.

땅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겠다. 영웅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주군에게만 충성을 다한다는 의지의 소산일 것이다. 특히 사와르는 자신과 홍고르를 특별히 상하 관계에 두지 않고, 동급의 능력이 있다고 여겼기에, 홍고르만을 추켜 주는 장가르의 분부는 그의 경쟁심을 자극시키는 원인이 된다. 샤르골의 세 임금에게 가서 주군 장가르는 흠이 있어 “그대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왔습니다. 저는 / 여기서 출정하여 전쟁을 일으켜 / 장가르의 고장을 복속시킵시다.”³⁴⁾라고 제안한 데서 그 점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와르에게, 무릇 주군이란 자신이 부리는 용사들의 능력을 고루 살펴보고 인정해 주는 자여야 하는데, 장가르는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고르처럼 순간적 분노의 말로써 위용을 보인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용사의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와르는 주군이 자신이 능력을 공정하게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그의 준마 퀴렝 갈잔을 통해 전해진 장가르의 말에서도 분명하게 파악된다. 즉 사와르가 나간 뒤에 독신 길간 임금에게 잡혔다면 “사람 매 나의 쿼테 가르타 사와르가 있으면 남에게 붙들릴 리가 없다.”³⁵⁾고 울며 사와르의 이름을 외친다. 이에 사와르는 독신 길간 임금의 나라를 정복하고, 붙잡혀 있는 장가르와 6,012 용사들을 구출한 후 장가르의 휘하 용사로 남는다. 주군 장가르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다른 임금에게로 가버렸던 사와르가 뒤늦게나마 장가르가 울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자 곧바로 본래 상태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라 사날의 예에서처럼 ‘영웅의 코드’로써 주군의 인정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를 사와르의 예에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34)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1), pp. 346-347.

35)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1), pp. 347-348.

이로써 볼 때, 사와르의 ‘영웅의 코드’와 관련한 사건 전개는 ‘영웅의 용맹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군의 분부 — 분부에 대한 항의와 이탈 — 주군의 뒤늦은 인정 — 전투(성공 또는 실패) — 본래 상태로의 복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3. ‘영웅의 코드’ 분석과 ‘행위패턴’의 도출

2장에서 흥고르, 사날, 사와르 등 「장가르」 속 주요 영웅들의 ‘영웅의 코드’와 그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장가르」의 구조는 크게 보면 「술잔치 — 정복전쟁 — 술잔치」로 되어 있는데, ‘정복전쟁’에 주목해 보면 영웅이 어떤 계기와 태도로 정복전쟁에 임하게 되는지가 「장가르」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영웅서사시는 본질적으로 영웅의 언행이 서사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그런 점에서 「장가르」에 등장하는 주요 영웅들을 ‘영웅으로서 규정하는 코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며, 또한 그 코드는 영웅들의 행위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를 패턴화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관성 역시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웅의 코드’에 따른 행위패턴이라는 것은 결국 영웅의 정복전쟁의 이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여기서는 2장에서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영웅의 코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그에 따른 행위패턴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표 1>은 2장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장가르」를 포함하여, 「게사르」, 「마나스」 등 영웅서사시는 주인공 영웅의 용맹성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이들의 용맹성은 정복전쟁에서 빛을 발한다. 위에서 정리한 「장가르」의 몇 대목에 등장하는 흥고르, 사날, 사와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맹성을

〈표 1〉

영웅	영웅의 코드	사건 전개
홍고르	명성	영웅의 용맹성을 과시하는 호언장담 — 영웅의 용맹성에 도전하는 사건의 발생 — 전투(성공 또는 실패) — 적장 및 적장이 소속된 나라의 정복
	명성, 본분	봄바 나라의 태평을 위협하는 사건의 발생 — 영웅의 용맹성을 과시하는 호언장담 — 전투(성공 또는 실패) — 본분을 다하지 않는 내부자에 대한 용맹성의 발휘
사날	인정, 경쟁심	영웅의 용맹성을 과시하라는 주군의 명령 — 명령에 대한 항의 — 용맹성에 대한 주군 및 상급 서열자의 인정 — 전투(성공 또는 실패) — 상급자의 관심 촉구 또는 동급자에 대한 경쟁심 발로
사와르	인정	영웅의 용맹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군의 분부 — 분부에 대한 항의와 이탈 — 주군의 뒤늦은 인정 — 전투(성공 또는 실패) — 본래 상태로의 복귀

발휘하게 만드는 ‘영웅의 코드’는 무엇인가라고 하였을 때, 명성, 본분, 인정, 경쟁심 등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장가르」에는 이외에도 영웅의 용맹성을 발휘하게 만드는 코드들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가르」에서 홍고르, 사날, 사와르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2장에서 추출해 낸 ‘영웅의 코드’만으로도 충분히 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장가르의 경우, 대체로 홍고르가 등장하는 대목에서 장가르의 출현 빈도가 높기 때문에, 홍고르를 논의하는 부분에서 함께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3.1. 명성

영웅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질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실제적으로 알려지는 명성을 구성하는 실제

적 내용은 인품이나 공적 등이겠지만, 그 내용들은 이름으로 포장되기 마련인 것이다. 「장가르」에서 홍고르가 용맹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그 용맹은 홍고르라는 이름과 반드시 결부되어 이야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예컨대 2장에서 살펴본 「독신 하라 사날이 힘센 망가스의 고장을 파괴하고, 장가르의 가르침에 들게 한 마당」에서 잔 태자 임금의 휘하에 있는 용사들이 사날에게 “장가르에게 아르슬랑의 위용 올란 홍고르 / 라는 용사가 있다고 했던가? / 나에 비해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그는?”³⁶⁾, “장가르의 고장에 / 키펬 가르타 사와르라는 / 용사가 있다고 하던데 / 나에 비해 어떤 사내인가, 그는?”³⁷⁾, “장가르에게 독신 하라 사날이라는 / 용사가 있다고 했다. / 그는 나에 비해 어떤 사람인가?”³⁸⁾라고 질문하는 것은 명성과 이름의 연관성을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장가르」의 전편에서 ‘영웅의 코드’로써 명성은 홍고르와 장가르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그런데 둘의 명성은 개인적인 것이냐, 집단적인 것이냐의 차이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둘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위계의 다름에 기인한다. 즉 장가르는 봄바의 군주이고, 홍고르는 장가르의 휘하에 있는 용사 중의 한 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는 둘 다의 행적이 명성으로 포괄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그 명성을 구성하는 내용이 다를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즉 군주로서의 장가르가 보여주어야 할 명성과 군주 휘하에 있는 용사(가장 대표적 용사)로서 보여주어야 할 명성이 다를 것으로 추론된다.

먼저 홍고르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홍고르는 장가르 휘하의 용사들 중 가장 용맹한 용사로 등장한다. 그의 용맹성은 “내 열 손가락에 / 아니 우그러진 사람이 없어!”³⁹⁾, “일제히 십만 자루 창의 끝이 찢렸다 해도 /

36)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322.

37)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324.

38)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324.

39) 「올란 홍고르가 하라 질간 임금과 전투를 벌인 마당」,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한쪽 다리도 들썩거리는 법이 없어.”⁴⁰⁾ “태키의 망가스 임금의 고장을 / 혼자서 무너뜨리고 온 홍고르야, 내가!”⁴¹⁾, “방황하는 국권에 끈고리를 채운, / 쇠 화살 (같은 너희들의) 목숨을 보장해 온 / 시르케의 (손자) 홍고르라는 사람이야.”⁴²⁾, “장가르의 한 용사가 기껏 가서, / 적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간다면, / 천년이 갈 것은 나쁜 이름, / 나와 같은 사람이 / 어디에서인들 아니 죽겠는가? / 죽겠다, 내가!”⁴³⁾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또한 결코 굴복하려 하지 않는 자세도 보여준다. 장가르의 부친 위쟁알다르가 장가르보다 2배 이상 가는 창수(槍手)였음에도 애호 독신 만나 임금에게서 겨우 목숨을 도모하여 살아나온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애호 독신 만나 임금의 사신이 장가르에게 와서 다섯 가지(아란잘 제르테 준마, 공주 샤프달 하탄, 우주의 미남 밍얀, 보랄 갈잔 준마, 홍고르)를 요구하자, 장가르가 애호 독신 만나 임금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다. 이에 홍고르는 외방에 가서 부림을 받느니 한 그릇의 피를 흘리고 죽겠다며 장가르의 결정에 반대한다.⁴⁴⁾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적에게 굴복의 자세를 보이려 하지 않는다.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167.

- 40) 「독신 하라 사날이 힘센 망가스의 고장을 파괴하고, 장가르의 가르침에 들게 한 마당」,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323.
- 41) 「샤라 비름스 임금의 도니라는 이름의 투구, 그리고 공격할 때 번개 치는 검을 홍고르가 빼앗아 오는 마당」,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8), p.328.
- 42) 「북쪽에 있는 샤라 케르멘 임금의 산호 같기에 진주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갈색 몸통에 얼굴에는 흰 털이 난 말 떼를 홍고르가 몰아온 마당」,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8), p. 358.
- 43) 「용사 붉은 홍고르가 아왈랑가 임금과 싸운 마당」,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8), p. 209.
- 44) 「울란 홍고르가 애호 독신 만나 임금을 다하고 주군 성주 장가르에게 들어준 마당」,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200.

‘국권을 가진 네 임금’의 군대가 장가르와 흥고르만 남아 있는 윈테르 망칸 차간 산을 일곱 겹으로 포위하자 장가르는 평화로운 귀순을 결정하지만, 흥고르는 “서로 맞서다 죽어서 귀순합시다!”⁴⁵⁾, “어느 산의 기슭에서 / 말라 갈 뼈를 아끼는 겁니까? / 어느 바다의 기슭에서 / 쏟고 갈 한 그릇 피를 아끼는 겁니까?”⁴⁶⁾라며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자고 말한다. 그리고는 장가르를 군주로 모시는 의식을 엄숙하게 거행한 후, ‘명성이 자자한 장가르’라는 이름을 3번 연달아 부른다.⁴⁷⁾ 이후 둘은 연전연승을 거듭하면서 마침내는 봄바 나라를 건국하기에 이른다. 흥고르의 용맹성은 장가르의 명성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자 봄바 나라의 명성을 지켜내기 위한 것인 셈이다. 말하자면 용맹성은 흥고르의 ‘영웅의 코드’로써 명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

흥고르는 용맹성만큼 빈번하게는 아니지만, 기지나 피를 발휘하는 인물로써도 묘사되고 있다. 「올란 흥고르가 하라 질간 임금과 전투를 벌인 마당」에 보면, 흥고르는 바타르 하라 질간 임금의 휘황찬란한 대궐이 봄바국보다 나으며, 8만 병력이 밤낮으로 대궐을 지키고 있는 게 마치 ‘자라나는 창’처럼 보여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 우리와 같은 사람이 / 어떻게 시비를 걸겠는가?”⁴⁸⁾라며 술 마시고 화를 부르는 말을 지껄인 걸 후회하며 ‘성수 같은 검은 눈물’을 흘린다. 「장가르」의 전편에서 흥고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극히 드물다.⁴⁹⁾ 그 점에서 이 마당에서의

45) 「장가르가 몸소 처음으로 국권을 잡는 마당」,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8), p. 237.

46) 「장가르가 몸소 처음으로 국권을 잡는 마당」,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8), p. 238.

47) 「장가르가 몸소 처음으로 국권을 잡는 마당」,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8), p. 240.

48)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p. 178.

49)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8), p. 514.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흥고르가 건너갈 수도, 돌아갈 수도 울창한 숲

홍고르가 눈물을 흘리며 용맹성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은 매우 특이하다. 그러나 곧 홍고르는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잠시 물러나 계책을 생각한 후, 밤에 몰래 바타르 하라 질간 임금의 대궐에 잠입해 왕비를 협박하여 임금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알아낸다. 그리고 사투 끝에 바타르 하라 질간 임금을 자루에 담아 납치해서 봄바국으로 귀환한다. 이처럼 홍고르는 공개적으로 나서서 적과의 전면전을 펼칠 경우,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서 꾀를 써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장가르」 전편에서 홍고르는 용맹성뿐만 아니라 기지를 발휘하여 명성을 확보하려는 영웅으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홍고르의 ‘영웅의 코드’로써 ‘명성’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장가르에게서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장가르」의 전편에서 장가르는 홍고르만큼 정복전쟁에 나서는 빈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가르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군주로 있는 봄바국 역시 명성이라는 코드로써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게 그가 세운 봄바국이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자신의 나라에서, / 늘 스물다섯 살의 모습으로 있는, / 겨울이 없이 봄 그대로, / 여름 없이 가을로 있는, / 떨리는 추위도 없이, / 사랑사랑 바람이 부는, /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 봄바의 나라인 것이네.”⁵⁰⁾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이 없는, 봄과 가을만 있는, 늘 25살의 모습으로 있는 유토피아 같은 곳으로 묘사된다. 정복전쟁에서 용맹을 떨쳐 그 명성을 알리는 홍고르와는 다소 그

을 만나자 “이것을 무슨 솜씨로 / 내가 건너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고, / 대단히 흥한 생각이 들었네. / “제르데를 찾아 나왔으면서, / 야생 버드나무가 두려워서 / 되돌아가려 한 / 이름은 어찌될 것인가? / 모든 사대주에 이름이 난 / 위용에 빛나는 붉은 홍고르라고 / 스스로 무엇 때문에 말했을까, 내가?”라고 좌절감을 표시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홍고르는 ‘사대주에 빛나는, 위용에 빛나는 홍고르라는 이름’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임무 완수를 위해 돌진한다.

50) 「들어가기」,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 (2011), p. 60.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장가르」의 전편을 통해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여러 신묘한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장가르의 휘하에 모였다는 것이다. 개별 영웅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명성이 자자해지는 것인데, 장가르의 명성은 것처럼 대한 능력자들이 그의 휘하에 모두 모여들었다는 것 자체로써 구성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장가르의 신비한 능력인데, 약비를 내려 부상자들을 치료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고아 소년, 굶주린 개까지 / 모두 살려”⁵¹⁾ 낸다. 그 점에서 장가르의 명성은 흥고르와는 달리 집단적 성격을 갖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주 영웅, 군주 영웅으로서의 장가르의 명성은 봄바국 그 자체의 명성까지를 포괄한다.

정복한 임금들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 정복전쟁을 끝내고 술잔치를 여는 것 등도 장가르의 명성을 확고하게 하는 한편, 그 명성을 만방에 떨치게 하는 방법이다. 정복한 임금의 뺨에 ‘장가르의 것’이 되었다는 낙인을 찍는 것은 그 정복된 임금의 예전 이름을 지우고, 장가르라는 이름의 명성에 새로 편입시키는 절차이다.⁵²⁾ 정복전쟁 후의 ‘이름 지우기’와 ‘이름 새기기’를 통해 패배자의 명성을 없애고 승리자의 명성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술잔치 역시 마찬가지다. 술잔치에서는 주변의 여러 임금들이 초대되고, 그 자리에서 주군 및 영웅적 위업이 찬양되기 마련이다. 또한 술잔치는 전쟁의 두려움 없이 쉬고 즐기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효과적 방법이 된다. 낙인과 술잔치는 장가르의 영웅의 코드로서 명성을 알리는 주요한 수단인 것이다.

「장가르」는 장가르와 흥고르의 이야기라고 할 만큼 둘에 대한 서술

51)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8), p. 378.

52) 「아요 만진 보랄을 가진 애흐 망나 임금의 불꽃 같은 올란을 가진 나라의 게렐이라는 용사가 장가르네의 특별한 다섯 가지 것을 요구하러 온 마당」에 의하면, 오타 차간의 뺨에 ‘용사 장가르 것’이라는 황금 낙인을 찍고, ‘용사 장가르’라는 이름을 3번 부르게 한다.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 123.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명성’은 이 둘의 영웅적 행위를 촉발시키는 주요 ‘영웅의 코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장가르는 봄바국이 죽음과 추위가 없으며, 25세의 젊음과 술잔치의 즐거움이 있는 유토피아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흥고르는 자신 및 봄바국의 명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차이점은, 「장가르」의 몇몇 마당에서 ‘명성이 자자한 장가르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장가르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나약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이해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의 눈물은 장가르 개인이 아닌, 군주 장가르의 위치에서 흘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가르는 곧 봄바국과 동일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⁵³⁾ 예컨대, 「퀴렐 에르덴 망가스 임금을 성주 장가르가 굴복시킨 마당」에서 “(자신이) 아르 봄바의 나라에는 / 꿈인 것을 생각했네. / (자신이) 위용에 빛나는 붉은 흥고르에게는 소망임을 기억했네.”⁵⁴⁾, “아래 세계의 일곱 나라의 / 소망이 되어 있는 / 내가 겨우 이 정도였는가? / 위 세상의 열두 나라의 / 꿈이 되고”⁵⁵⁾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장가르는 ‘자신이 봄바 나라의 꿈’이며, ‘흥고르에게는 소망’인 군주이며, ‘아래 세계 일곱 나라, 위의 세계 열두 나라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53) 「퀴렐 에르덴 망가스 임금을 성주 장가르가 굴복시킨 마당」에 의하면, 장가르가 퀴렐 에르덴 망가스 임금에 붙잡혀 있게 되는 동안, 봄바국은 25세의 젊음이 유지되지 못한다. 예컨대, 장가르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봄바국을 방문하였을 때에 아내 샤프달 하탄이 ‘지친 백발 노파’가 되어 있다고 묘사되고 있다. 또한 장가르가 본모습으로 돌아와 봄바국에 오자 웅성거리던 여러 대신들이 들어오고, 봄바국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 ‘겨울이 없는 여름의 나라’로 다시 우뚝 서게 된다. 이는 장가르가 곧 봄바국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잘 말해 준다.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p. 164-167.

54) 「퀴렐 에르덴 망가스 임금을 성주 장가르가 굴복시킨 마당」,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8), pp. 136-137.

55) 「퀴렐 에르덴 망가스 임금을 성주 장가르가 굴복시킨 마당」,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 127.

3.2. 본분

‘영웅의 코드’로써 ‘본분’ 역시 홍고르에게서 잘 확인된다. 강적을 맞이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예견자의 본분을 맡고 있는 알탄 체지가 그의 본분을 다하지 않자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를 표출한 부분에서다. 그런데 본분은 본질적으로 수직선상의 위계를 전제한다. 수직선상의 위계를 전제했을 때,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면, 그 때문에 명성이 자자해진 것이라면, 그것은 영웅들이 견지해야 할 코드가 된다. 특히 장가르나 홍고르에게 있어서는 그렇다.

「퀴렐 에르덴 망가스 임금을 성주 장가르가 굴복시킨 마당」에서 장가르의 말치기 샤라 망가스가 장가르에게 와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도둑이 절따말 때를 훔쳐갔다고 보고하자, 장가르는 자신의 이름과 홍고르의 이름을 들었다면 힘없는 악령이 훔쳤을 리가 없다면서 수비 보강을 지시한다. 그러나 홍고르의 반발에 부닥친다. ‘위용에 빛나는 홍고르’가 봄바국에 있는데, 수비를 보강한다는 것은 그의 체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본분에 근거한 발언이다. 보강이 아니라, 현재 장가르의 휘하 용사들이 맡고 있는 각자의 본분에 따라 대처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에 장가르는 알탄 체지, 왕게 비, 사와르 등을 데리고 직접 출정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

「장가르」에서의 영웅들이 본분, 특히 주군의 본분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흥맹한 노랑 귀르귀 임금을 유명한 붉은 쇼브쇼르가 타도하는 마당」에서 잘 알 수 있다. 장가르가 식사도 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에만 잠겨 있자, 여러 대신들이 모여서 그 이유를 묻는다. 그러나 장가르는 대신들에게 아무 분부도 대답도 하지 않는다. 이에 다르와드 알탄 임금의 아들 달라 질왕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묻지만 장가르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하여 장가르는 홍고르를 찾아와서는 “그릇으로 하나의 피를 / 어느 산의 기슭에서 / 쏟을지는 나도 모른다. / 열 개의 흰

뼈가 / 어느 산의 기슭에서 / 빛이 바랄지는 나도 모른다. / 경박한 검은 영혼이 / 어느 지옥의 바다를 / 향할지는 나도 모른다. 아르 봄바의 나라를 지켜라.”⁵⁶⁾고 분부한다. 그러자 콤베를 필두로 여러 대신들이 장가르를 찾아와서 ‘봄바의 나라가 그대에게 필요 없게 되었다면 자신들에게도 필요 없다’는 불만을 내쫓고 뿔뿔이 흩어진다. 장가르가 군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신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⁵⁷⁾ 그리하여 봄바국에는 흉고르만 남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점은 「장가르가 몸소 처음으로 국권을 잡는 마당」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사날은 명성이 자자한 장가르라는 임금에 대해 모두들 응성대는데, 자신이 따라야 할 마땅한 통치자라면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백단향나무 창으로 장가르의 몸을 창질하고 떠나겠다고 말한다.⁵⁸⁾ 사날은 장가르가 군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장가르」에서의 영웅들은 ‘영웅의 코드’로써 본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을 취하고 있다. 신하로서의 본분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특히 군주의 본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분을 다하는 군주로서 명성이 자자하다면, 영웅들은 기꺼이 그 군주의 휘하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충성을 다하는 행위를 취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더 합당한 군주를 찾아 나서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영웅의 코드’로써 본분은 군주에게 더 요구되거나 군주의 위치만큼 높은 서열에 있는 자에게 더 요구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장가르 휘하

56) 「흉맹한 노랑 귀르귀 임금을 유명한 붉은 쇼브쇼르가 타도하는 마당」,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p. 178-179.

57) 「흉맹한 노랑 귀르귀 임금을 유명한 붉은 쇼브쇼르가 타도하는 마당」,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 172; pp. 180-181.

58)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8), p. 299.

의 여러 용사들이 각자의 본분에 맞게 행위를 함으로써 유토피아 봄바국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장가르는 봄바국과 동일체에 있기에, 적어도 「장가르」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 장가르가 봄바국의 군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봄바국은 유토피아로써 성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홍고르 역시 장가르가 부재 시에 대신 군주의 자리를 부탁할 만큼 주요한 영웅이다. 「퀴렐 에르덴 망가스 임금을 성주 장가르가 굴복시킨 마당」에서 장가르가 가루라 새로 둔갑한 퀴렐 에르덴 임금에게 붙잡혀 가서 그 종적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알탄 체지, 윙게비, 사와르는 “홍고르에게 봄바의 나라를 지키도록 해 버리고/ 영예로운 장가르를 찾아”⁵⁹⁾ 나선다. 이처럼 「장가르」 전편에서 홍고르는 장가르만큼 막중한 지위에 있는 영웅이다. 봄바국이 유토피아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 부분 장가르와 홍고르의 영웅적 능력에 기인하는 셈이다.

장가르와 홍고르가 그들의 명성만 믿고 본분을 다하지 않거나 가볍게 여길 경우 사단이 나는 것, 즉 적에게 붙잡히는 것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이들의 본분이 가볍지 않다. 장가르가 아무 말도 없이 봄바국을 떠나거나, 홍고르가 슬주정에 가까운 호언장담을 하는 것으로 서사가 시작되는 마당에서는 필시 둘 다 적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이들을 찾아 들이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장가르」의 전편에서 보자면, 장가르가 홍고르를 찾아나서는 마당이 더 많다. 「올란 홍고르가 애흐 독신 망나(두렵고 흥명한 선봉) 임금을 다히고 주군 성주 장가르에게 들려준 마당」, 「오토 차간 망가스를 장가르가 타도하는 마당」, 「흥명한 노랑 귀르귀 임금을 유명한 붉은 쇼브쇼르가 타도하는 마당」, 「명성이 자자한 성주(聖主) 장가르가 흥명한 검은 키내스를 타도한 마당」, 「아잘란 빠른 제르데를 도둑이 훔쳐 간 데 대한 마당」 등이 그러한 예다.

59)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6), p. 142.

그런데 이들 마당에서의 사건이 홍고르가 자신의 본분을 너무 과신한 데서 발생한 것이지만, 주군 장가르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충직한 부하이자 친구이며, 자신을 주군의 지위에 올린 홍고르를 찾아나서는 것은 군주로서, 친구로서 당연한 행위인 것처럼 「장가르」 전편에서 묘사되고 있다.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휘하 용사를 찾아나서는 것이 군주의 ‘영웅의 코드’로써 지극히 합당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홍고르와 사와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가르가 몸소 처음으로 국권을 잡는 마당」에서 둘은 의형제로 맺어진다. 즉 장가르는 홍고르와 사와르가 맞서게 되어 서로 다투다가 “목숨 없이 / 기절해 쓰러져 있을 때 / 목에 있던 / 사나운 흰 부적을”⁶⁰⁾ 바꿔 채워 둘을 의형제로 만든다. 그래서 「홍고르가 아홉야차녀(夜叉女)의 고장에 가서 피를 빨린 마당」에서 사와르는 자신의 의형제 홍고르를 구출하기 위해 단기필마로 출정하여 홍고르 구출의 임무를 완수한다. ‘영웅의 코드’로써 본분은 자신이 주군일 때, 주군에 버금가는 휘하 용사일 때, 의형제일 때 필수적으로 작동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더하여 본분이라는 ‘영웅의 코드’는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작동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3. 인정

‘영웅의 코드’로써 ‘인정’은,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휘하 용사가 군주 장가르로부터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수직적 위계 속에서 작동되는 영웅의 코드이다. 영웅이 자신에 내재된 능력이나 부속된 물건(무기, 주술적 신물 등), 동물(「장가르」의 경우 말) 등에 기초하여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장가르」에서는 군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초월적 능력의 발휘 여부가 결정되고

60) 칼미크-오이라트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8), p. 323.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위계상 다소 낮은 위치에 있거나 완전하게 장가르에게 귀순되지 않은 영웅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사날과 사와르가 그에 해당한다. 「장가르」에서 사날은 장가르의 휘하에 있는 주요 용사 중의 한 명이지만 알탄 체지나 홍고르에 비해 그 위계가 낮다. 그에 비해 사와르는 위계상 홍고르와 동급에 있다. 즉 홍고르가 우익의 일곱 동아리를 이끌고 앉은 자라면, 사와르는 좌익의 일곱 동아리를 이끌고 앉은 자이다. 그렇지만 사와르는 주군 장가르로부터 홍고르만큼 신임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다.⁶¹⁾ 그 스스로 완전한 귀순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가르가 몸소 처음으로 국권을 잡는 마당」에 의하면, 장가르는 왼쪽의 일곱 동아리를 이끌 용사로 ‘갈 테제의 아들 미치광이 붉은 사와르’를 임명한다. 그리고서 완벽한 귀순 의사를 확정하기 위해, 사와르가 타고 다니던 말 퀴렝 갈잔의 짧은 갈비와 쓸개즙을 갖겠다고 말한다. 이에 사와르는 갈비와 쓸개즙은 장가르의 빠른 제르데 말에서나 나오면 가지라고 말하며 “나는 그대들에게 지금도 귀순하지 않았소!”⁶²⁾라고 항의한다. 그래서 장가르는 사와르에게 ‘퀴렝 갈잔의 갈비와 쓸개즙’을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왼편의 일곱 동아리를 이끌도록 한다.⁶³⁾ 장가르의 휘하 용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와르는 장가르와 일종의 타협을 한 것이다. 때문에 사와르는 「퀸데 가르타 사와르가 독신 킬간(홍명한 칼날) 임금을 장가르의 가르침에 들게 한 마당」에서 홍고르에 비해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하자, 그에 항의하여 샤프골 세 임금에게로 곧장 가서는 장가르를

61) 「장가르」에서 홍고르는 장가르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용사로 묘사된다. 「장가르가 몸소 처음으로 국권을 잡는 마당」에 “오른쪽 일곱 동아리를 / 용력 넘치는 붉은 홍고르가 소리 없이 이끌고, / 주군 성주 장가르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으며 왔네.”로 묘사되어 있다.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8), p. 324.

62)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8), p. 325.

63)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8), p. 325.

함께 공격하자는 제안을 한다. 그런 점에서 「장가르」에서 ‘영웅의 코드’로써 인정은 철저하게 상하 위계 및 주군 장가르로부터의 신뢰 여부에 강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장가르」에서 영웅의 코드로써 ‘인정’은 이처럼 ‘위로부터 아래로의 경로’로만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살핀 ‘본분’과 관련되어 설명되는 점인데, 장가르에게 모여드는 무수한 영웅들은 장가르가 널리 알려진 명성대로 군주로서의 본분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귀순의 과정을 밟는다. 장가르의 휘하 용사들 역시 장가르를 주군으로서 인정할 만한 판별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이래로부터 위로의 경로’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주군이라면 휘하 용사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능력에 대해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영웅의 코드’를 가져야 마땅하고, 휘하 용사들 역시 군주가 본분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가, 그리하여 자신이 모실 주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영웅의 코드’를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영웅의 코드’로써 ‘인정’은 ‘영웅의 능력’과도 관련이 있지만, ‘영웅의 계보’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장가르」에 등장하는 영웅들 중 출중한 임금이거나 용사일 경우 대체로 그 수직적 계보가 언급된다. 예컨대, 장가르는 ‘보동 졸라의 손자 봄바 졸라의 증손 메르겐 토르치의 고손 위쟁 말라 하브흐 임금의 후손 위쟁의 고아 장가르’⁶⁴⁾로, 흥고르는 ‘퇴멜게트 임금의 손자 퇴멜렉트 임금의 증손자 빅테르게의 혈통 장사 땡겐 식셰르게의 아들’⁶⁵⁾로 서술된다. 수직적 계보를 통해 자신의 현재 혈통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또한 장가르의 경우, 적국에서 그곳의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으로도 설명하고 있는 마당이 있는데, 그때 출생한 아들이 장가르의 용사들에게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방식도 결국

64) 칼미크-오이라트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8), p. 259.

65) 칼미크-오이라트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8), p. 265.

계보이다.⁶⁶⁾ 이처럼 「장가르」에서 영웅들은 자신의 능력을 군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 자신들도 군주를 인정한 후 귀순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수직적 계보를 무척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장가르의 적대자들이 계보 없이 소개되는 것과는 달리 장가르 및 장가르의 휘하 용사와 아들이 계보로써 제시된다는 것은 영웅이야말로 명확한 계보 속에 놓이는 인물이라는 점을 잘 부각시켜 준다. 「장가르」에서의 ‘계보’는 장가르 및 그의 휘하 용사들의 ‘영웅의 코드’로써 ‘인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것이다.

3.4. 경쟁심

‘영웅의 코드’로써 경쟁심은 사와르와 사날, 사와르와 홍고르 간의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파악된다. 또한 원조자로 등장하는 적지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길항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장가르」의 전편은 정복전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복전쟁을 통해 획득하는 것들로는 적국의 영토와 신민, 특별한 말과 무기, 특별한 능력을 지닌 용사, 특별한 미모의 여성 등이다. 「올란 홍고르가 애흐 독신 망나 임금을 다히고 주군 성주 장가르에게 들여준 마당」에 의하면, 애흐

66) 「흥명한 노랑 귀러귀 임금을 유명한 붉은 쇼브쇼르가 타도하는 마당」의 “장가르가 말했다네. / “그대를 소리가 있는 술한 고통을 겪게 하고 / 내가 얻은 수확물은 / 저기 가는 소년 그다!” 하고 / 홍고르에게 가리켰네. / “이에 대해 내게 언제든 / 어찌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 장가르여, 이에 대해 / 그대와 송사를 하겠습니까!” 하고 말했다네. (중략) 위용에 빛나는 붉은 홍고르가 선언했네. / “장가르와 내가 / 송사가 있습니다. / 둘러싸고 앉은 대신들은 / 판결해 주시오!” 하고 / “공한 올란 쇼브쇼르를 / 지금까지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 대신들이 모두 재판을 해서 / 봄바의 홍고르가 옳다고 판결했네. / 봄바의 붉은 홍고르가 옳다고 판결받게 되고, / 공한 올란 쇼브쇼르에게 / 이름을 주게 되는 판결을 받았네. / “국권과 종교를 겸병하고 나온 / 티베트 봄바의 나라를 모아 나온 / 에르케 바담의 활불이 되거라!” 하고 이름을 주었네.”가 이에 해당한다.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엮음(2016), pp. 246-248.

독신 망나 임금이 장가르에게 사자를 보내 장가르가 타고 다니는 말 아란잘 제르테, 사날이 타고 다니는 보랄 갈잔, 장가르의 아내 샤브달 하탄, 우주의 미남 밍얀, 위용이 뛰어난 흥고르 등 다섯 가지를 내놓으라고 협박한다.⁶⁷⁾ 장가르에게 이 다섯 가지는 매우 소중한 것들이어서, 장가르가 애호 독신 망나 임금의 요청을 들어주게 될 경우, 장가르의 봄바국은 적국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 「장가르」의 전편에서 소개되고 있는 정복전쟁이 이와 어떤 식으로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가르」는 장가르의 봄바국과 적국과의 경쟁 및 그에 따른 정복전쟁을 다른 서사시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장가르」에는 용사들 개인 간에 벌어지는 경쟁심도 얘기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장가르네와 적대국 간에 벌어지는 국가 간 경쟁심에 더 초점이 있는 것이다. 봄바국의 경우, 그 봄바국과 일체화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장가르이고, 적국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로이기에, 실제로는 장가르와 적국의 임금들 간의 경쟁심이 정복전쟁의 형태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다. 「명성이 자자한 성주 장가르가 흥명한 검은 키네스를 타도한 마당」이 대표적 예다. 키네스 임금의 용사들이 술잔치 석상에서 아르자 술에 취해 백 년의 순서와 여섯 해의 파수에 대해 함께 해야 할 때에 키네스 임금이 “해 아래 세상의 나라에, / 해와 달 아래, 나와 겨룰 만한 사람이 있느냐?”⁶⁸⁾라고 말한다. 이에 차간이라는 용사가 나서서 장가르를 언급한다. 장가르야말로 키네스 임금의 경쟁상대가 될 만하다는 점을 아뢰는 것이다. 그러나 키네스와 차간은 장가르와 6,012 용사들에게 패배를 당해 대궐은 부서지며, 속민은 모두 이주를 당한다.

그런데 빈도가 낮긴 하지만 봄바국 군주로서 장가르가 적국의 임금들과 때로는 우호적 경쟁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바타르 하라 질간, 알라

67)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1), pp. 197-199.

68)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8), p. 57.

송호르, 호순 올란이 같이 가서 퀴츠데 바드민 올란을 산 채로 잡아온 마당」이 그 적절한 예다. 장가르는 아직 봄바국을 세우기 이전에 용사 바드민 올란을 만나서 싸움을 벌였다가 패배한다.⁶⁹⁾ 그때에 바드민 올란은 장가르를 바로 죽이지 않고, 3가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니, 그 3가지를 모두 이룬 후에 다시 전투를 벌이자고 제안한다. 바드민 올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가르가 아직 자신의 경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장가르가 경쟁상대로서 성장했을 때 다시 경쟁의 전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에 장가르와 바드민 올란이 다시 경쟁하게 되었을 때에, 바드민 올란은 장가르의 아들 하라 질간, 흥고르의 아들 호순, 알탄 체지의 아들 알라 송호르에 의해 사로잡혀 봄바국으로 끌려온다. 이후 장가르의 대신들이 바드민 올란을 바른편 보위에 앉히려고 하자, 바드민 올란은 그러한 제의를 거부하고 장가르의 상속자에 앉는다. 그리고서 예전에 목숨을 도모하여 준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봄바의 나라를 차지하고 / 온갖 좋은 이름을 / 퍼뜨리며 행하게 되라!” 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 장가르의 속민이 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장가르와의 경쟁에서 패배를 받아들인다.

이처럼 「장가르」 속의 군주 영웅들은 적국을 정복하고, 준마와 능력 있는 용사들을 빼앗기 위해 영웅의 코드로써 경쟁심을 발휘한다. 그 과정에서 바드민 올란처럼 우호적 경쟁관계를, 키내스처럼 적대적 경쟁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런데 2장에서 사와르와 사날, 사와르와 흥고르 간의 관계에서도 경쟁심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중첩되기도 하는 모습이 유추되었는데, 바드민 올란의 예에서도 경쟁심이 자존심이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예전에 자신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살려준 적까지 있는 장가르에게 이제는 생포되어 장가르보다 못한 보위, 즉 장가르는 고급 황금보위에 앉는데 자신은 순수한 은제보위 위에

69) 칼미크-오이라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2011), p. 355.

앉히려려고 하자 바드민 올란은 장가르 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곧바로 장가르의 상석에 올라가 앉아 버린다. 이는 바드민 올란이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크게 역전된 상황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어려운 입장에서 최대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취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장가르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경쟁심과 자존심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하겠는데, 「장가르」에서 분명한 것은 이것이 남자 용사들 간의 문제로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남자 용사와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 특정 행위들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가르가 적국 여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이와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퀴렐 에르텐 망가스 임금을 성주 장가르가 굴복시킨 마당」에 의하면, 장가르는 자신을 도우려는 적국 여자에게 “여자 사람을 시켜 풀려 나왔다고 함은 / 천년의 (더러운) 이름이 될 것이다”⁷⁰⁾라고 말한다. 혹시라도 적국 여자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게 되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의 명성에 빛나는 이름이 천년 동안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국의 포로가 되었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적국의 임금, 남자 용사들과 정당하게 경쟁해서, 아니면 남자의 도움⁷¹⁾을 받아서 탈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인 것이다. 탈출 과정에서 적국 여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게 장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경우, 남자 용사의 ‘영웅의 코드’로써 경쟁심은 이후부터 모두 무력화되고, 그

70) 칼미크-오이랴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 148.

71) 이는 퀴렐 에르텐의 작은 하탄 나르니 퀴켄이 장가르의 탈출을 도우려고 장가르에게 남자 시종을 보낸 대목에서 잘 확인된다. “이낙 시종이 와서, / 장가르에게 물었네. “우리 나르니 퀴켄 작은 하탄이 / ‘어느 봄바의 나라의 / 누구라는 사람의 아들인가, 그대는? 하고 / 이름을 알아오라’고 했소.” / “지옥의 술한 고통을 / 겪었지만 / 여자 사람에게 사연을 말하는 / 사람의 후예가 아니다, 나는 / 소년 몸인 너에게 말하마. 하탄에게서 상(賞)을 받고 와라!” 하고 소년을 보냈네.” 칼미크-오이랴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6), pp. 144-145.

것은 결국 남자 용사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훼손시켜 버리게 된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적국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설명하고 있다. 장가르는 몰랐지만, 그가 44개의 머리가 달린 뿔뿔 검은 괴물을 처치한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 적국 여자가 괴물의 배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적국 여자가 지금 그 은혜를 자신에게 갚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장가르는 적국 여자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침내 퀴렐 에르텐 망가스 임금을 처치하게 된다. ‘영웅의 코드’로써 경쟁심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적국 여자의 도움은 ‘은혜 갚기’가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그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⁷²⁾ 요컨대 ‘영웅의 코드’로써 ‘경쟁심’은 자존심과 길항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5. ‘영웅의 코드’의 주요 특징과 ‘행위패턴’의 도출

이상에서 「장가르」에 나타난 ‘영웅의 코드’로써 명성, 본분, 인정, 경쟁심 등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에서 확인되는 주요 특징에 약간의 논의를 덧붙여 ‘행위패턴’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첫째, ‘영웅의 코드’가 개인 및 군주에 모두 작동되고 있다. 이는 장가르가 봄바국을 통치하는 군주로서의 영웅이라면, 흥고르, 사와르, 사날 등은 군주를 모시는 휘하 용사로서의 영웅인 것과 관련이 있다. 대개의 영웅서사시에서는 군주라 하더라도 개인에 한정하여 ‘영웅의 코드’가 작동되지만, 「장가르」에서는 군주 영웅과 군주 휘하의 개별 영웅들에 모두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군주 영웅이 안고 있는 문제로부터 시

72) 장가르의 휘하 용사들이 정복전쟁에 나설 때, 알탄 체지가 도중에 만나게 될 여성들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알탄 체지의 예견에 의하면, 용사들이 도중에 만나게 될 여성들은 용사들의 용맹성이나 경쟁심을 파멸시키는 기능을 한다.

작되는 마당(적이 준마를 훔쳐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마당, 사신이 와서 중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마당 포함)과 개별 영웅들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마당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영웅의 코드’가 수직관계, 수평관계, 순환관계 등의 구조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 이 역시 위의 첫째에서 제시한 설명과 관련이 깊다. 「장가르」는 봄바국이라는 유토피아의 군주인 장가르와 그의 휘하 용사들이 중심이 되어 펼치는 정복전쟁을 내용으로 하지만, 군주 장가르가 유토피아 봄바국과 일체화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웅의 코드’들이 단일한 관계 속에서 작동되기보다는 수직관계, 수평관계, 순환관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두루 작동되어 나타나고 있다. 장가르와 관련된 명성, 본분, 인정 등은 수직관계 속에서 작동된다든지, 흥고르와 관련된 명성은 수직 및 수평관계 속에서 작동된다든지, 경쟁심은 장가르와 그의 휘하 용사 모두에게서 수평적으로 작동한다든지 하는 게 그 예다. 한편, 장가르의 명성을 구성하는 요소인 술잔치는 장가르 및 봄바국의 명성이 순환관계에 있음을 말해 준다. 술잔치는 장가르와 봄바국의 명성을 사방에 널리 전파시키는 방식인데, 「장가르」의 대부분 마당이 ‘술잔치-정복전쟁-술잔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반부의 술잔치는 봄바국의 명성에 도전하는, 또는 봄바국의 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건과 관련되고, 후반부의 술잔치는 정복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봄바국의 명성을 확인하고 증대시키는 사건과 관련된다. 말하자면 술잔치로써 제시되고 있는 전후반의 순환관계 속에서 장가르와 봄바국의 명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보건대, 「장가르」속 ‘영웅의 코드’는 봄바국이라는 국가 체제 속에서, 그리고 수직, 수평, 순환 등의 관계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장가르」속 영웅들이 자의에 의하여, 또는 타의에 의한 ‘행위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이와 관련이 깊다. 즉 영

웅들이 국가 체제에 속해 있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개별적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체로는 봄바국의 군주인 장가르의 충직한 신민으로서의 타의적 행위패턴을 보여주지만, 때로는 개인적, 자의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특정 상황을 초래하기도, 또는 맞이하기도 하는 행위패턴을 보여준다. ‘영웅의 코드’에 따른 영웅의 ‘행위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 중 어느 지점에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장가르」 속 영웅들의 ‘영웅의 코드’에 따른 ‘행위패턴’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영웅의 코드	영웅	행위패턴	자의/타의 여부
명성	장가르	• 영생불멸의 봄바국을 알리기 위해 → 전투 중의 사망자를 살려내고 부상자를 치료하기	자의
		• 자신 및 봄바국을 알리기 위해 → 포로의 뺨에 낙인찍고 술잔치하기	자의
본분		• 군주의 자격을 말하기 위해 → 군주가 자신의 본분을 방기하였다가 고난을 겪은 후 복귀하기	자의
명성	홍고르	• 군주의 명령을 받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걸 알리기 위해 → 정복전쟁에 나서기	타의
본분		• 자신의 위용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 정복전쟁에 나서기	자의
인정	사와르, 사날	• 군주는 신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 군주에 명령에 항의하였다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정복전쟁에 나서기	자의/타의
	주요 용사	• 군주의 능력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 판별 여부에 따라 귀순을 결정하기	자의
경쟁심	장가르	• 적국의 왕을 정복하기 위해 → 적대적 경쟁과 정복하기	타의

영웅의 코드	영웅	행위패턴	자의/타의 여부
경쟁심	장가르	• 적국의 왕을 정복하기 위해 → 우호적 경쟁과 자존심 지키기	자의
		• 남성 영웅 간의 경쟁을 강조하기 위해 → 명분 없이 적국 여성의 도움을 받지 않기(적국 여성의 원조는 영웅의 경쟁심을 없애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자존감을 낮추게 만든다)	자의
	주요 용사	• 비슷한 위계에 있는 용사들 간에 지켜져야 언행을 보여주기 위해 → 우호적 경쟁과 자존심 지키기	자의

4. 맺음말: 「장가르」 속 ‘영웅의 코드’의 다양성과 위계성, 그 특수성을 생각하며

본 논문은 몽골의 대표적 영웅서사시 「장가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작품 속 ‘영웅의 코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행위패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논의한 것이다. ‘영웅의 코드’는 영웅의 정신과 행위를 제어하는 규범과 같다. 그래서 영웅들은 그들이 견지하는 ‘영웅의 코드’에 따라 특정 언행들을 하게 마련인데, 「장가르」에는 그러한 ‘영웅의 코드’가 명성, 본분, 인정, 경쟁심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행위패턴은 자의에 의한 것과 타의에 의한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같은 인물에서도 그 행위패턴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장가르」가 꽤나 복합적 성격을 갖는 독특한 영웅서사시라는 점을 추론케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장가르」의 이런 독특하고 복잡한 성격을 다양성과 위계성 등 그 특수성의 측면을 다시 강조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해 한다.

「장가르」의 주인공은 장가르이지만, 실상은 흥고르가 정복전쟁을 수

행하는 마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영웅서사시라는 게 주 영웅의 투쟁담을 내용으로 하는 갈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가르」는 흥고르에 대한 서사시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장가르」의 주인공은 장가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장가르에게는 흥고르를 비롯한 몇 용사들을 끌어 모으게 하는 성주(聖主)로서의 위력이 있고, 봄바국의 신민들을 25세의 모습을 유지하며 영생불멸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비를 내려 전투 과정에서의 부상자를 치료하고 사망자를 소생시키는 주술적 힘도 있다. 그래서 장가르가 봄바국에서 사라지면 봄바국은 폐허가 되고, 모든 존재들은 다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노화되어 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장가르는 곧 유토피아 봄바국 그 자체이자 봄바국의 흥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영웅인 것이다. 이는 장가르가 정복전쟁에 나서기보다는 흥고르를 비롯한 그의 휘하에 있는 영웅들이 주로 정복전쟁에 나서는 이유가 된다. 장가르는 군주, 성주로서의 영웅 역할을, 나머지 영웅들은 신민으로서의 영웅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가르」는 성주 장가르를 정점으로 피라미드처럼 각종 능력을 갖고 있는 영웅들을 수직적으로 배치해서 서사를 전개하고 있는 영웅서사시인 것이다.

「장가르」는 1명의 영웅이 아닌, 장가르를 비롯한 몇 영웅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체제 속에 위치해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웅의 코드’ 또한 다양하고 위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대개는 하나의 ‘영웅의 코드’로써 영웅의 정신적, 행위적 규범을 특징짓고 있는 영웅서사시가 일반적이지만⁷³⁾, 「장가르」에는 여러 영웅들이 국가 체제 속에서 등장하다보니 ‘영웅의 코드’가 다양하게, 그리고 위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장, 3장의 논의를 통해서 파악한, 「장가르」 속 영웅들의 정신,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영웅의 코드는 명성,

73) 「일리아스」 같은 방대한 서사시에서도 영웅의 코드는 ‘자존심(또는 면목)’ 하나만 분석되었다. 정준영(2008), 『『일리아스』에서 영웅적 자아의 aidōs와 행위패턴』, 『서양고전연구』 제33집, 한국서양고전학회, pp. 5-44.

본분, 인정, 경쟁심 등으로 무척 다양하다. 또한 이들 영웅의 코드는 영웅들의 수직관계, 수평관계에 따라 위계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중 ‘명성’은 「장가르」를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영웅의 코드’라고 할 수 있다. 계속 언급했다시피 「장가르」는 장가르, 흥고르 위주의 영웅서사시인데, 바로 ‘명성’은 이 두 영웅과 결부되어 있는 핵심적 ‘영웅의 코드’인 것이다. 봄바국이라는, 장가르라는, 흥고르라는 이름이 표상하는 명성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서사가 여러 마당을 통해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3장의 논의를 참조하여, ‘명성’이라는 ‘영웅의 코드’가 어떻게 위계성을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장가르의 명성은 ‘낙인’과 ‘술잔치’로 구성되는데, 낙인은 적국 임금의 뺨에 ‘장가르의 것’이라는 표시를 해둠으로써 ‘이름 지우기’와 ‘이름 새기기’를 동시에 병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낙인은 적국 임금의 이름을 지워버림으로써 그와 관련된 명성을 없애는 한편, 거기에 장가르의 이름을 새로 새김으로써 장가르의 명성을 더욱 증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술잔치는 적국을 정복하거나 준마, 무기 등을 획득해 온 것을 축하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장가르와 그의 나라 봄바의 명성이 반복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다. 술잔치는 장가르와 봄바국의 명성, 즉 죽음이 없이 25세의 젊음을 유지하며, 추위 없이 풍족한 삶을 평화롭게 누리고 있다는 명성을 사방에 널리 전파시키는 방식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가르」의 대부분 마당이 ‘술잔치 — 정복전쟁 — 술잔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반부의 술잔치는 봄바국의 명성에 도전하는, 또는 봄바국의 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건과 관련되고, 후반부의 술잔치는 정복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봄바국의 명성을 확인하고 증대시키는 사건과 관련된다 고 하겠다.

그에 비해 흥고르의 명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용맹성과 기지(피)는 개인과 국가에 모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흥고르의 영웅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용맹성, 기지 등은 흥고르 개인에 국한되는 명성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가 속해 있는 봄바국의 명성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홍고르는 장가르를 주군으로 추대한 영웅이기도 하거니와 장가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충직한 신민이기에, 홍고르가 정복전쟁에서 거둔 성과는 곧 장가르와 봄바국의 명성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심지어는 몇몇 마당에서 홍고르는 장가르 부재 시 그를 대체할 수 인물로 종종 묘사되고 있기도 하는바, 이는 여타의 영웅에 비해 홍고르가 장가르에게, 봄바국에게 가장 중요한 영웅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그 점에서 장가르와 홍고르의 ‘영웅의 코드’로서 명성은 여타의 ‘영웅의 코드’를 위계화하는 데에 가장 주요한 초점이자 기준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본다. 장가르와 홍고르를 제외한 나머지 영웅들에게서는 영웅의 코드로써 명성이 아니라, 본분, 인정, 경쟁심 등의 영웅의 코드가 주요한 정신, 행위의 규범으로써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체제 속에서의 영웅의 서열 내지는 장가르와의 관계에 따라 영웅의 코드가 위계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는 가공할 만한 초능력자들이 한 동아리를 이뤄, 역시 가공할 만한 적에 맞서 지구를 지켜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장가르」도 무용(武勇)이 뛰어난 여러 영웅들이 봄바국의 장가르를 중심으로 모여들어 봄바국을 지켜내기 위한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이다. 그 점에서 「장가르」는 영화 「어벤져스」의 원형이자 고대 판본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영화 「어벤져스」에는 여자 초능력자가 등장하지만, 「장가르」에는 여자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 「장가르」는 남자 영웅 중심의 서사시인 것이다. 이는 「장가르」에서 대부분 여성의 역할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게사르>만 하더라도 게사르 부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서술되며⁷⁴⁾, 여타 정복전쟁을 다루고 있는 허저족의 이마

74) 최원오(2004),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II) — 티베트의 영웅서사시 <게사르>를 중심으로 —」, 『구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구비문학회, pp. 513-560.

칸이나 아이누의 유카르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낮지 않다.⁷⁵⁾ 또한 몽골의 부리아트 유형의 토을, 할흐 유형의 토을, 오이라트 유형의 토을에 속하는 주요 작품을 보더라도 역시 여성을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다.⁷⁶⁾ 이는 「장가르」가 남자 영웅들의 정신, 행위를 규율하는 ‘영웅의 코드’만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을 추정케 한다.

이처럼 「장가르」는 일반적인 영웅서사시와는 달리 특이한 점들을 다수 내재하고 있다. 그 점에서 「장가르」는 영웅서사시 연구의 보고라고 할 만하다. 이 논문은 ‘영웅의 코드’, ‘행위패턴’ 등에만 한정하여 살핀 것이지만, 「장가르」가 ‘영웅에 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는 서사시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므로, 앞으로 더 다양한 관점에서 「장가르」의 문학적, 문화적 가치 등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영웅이란 어떤 코드로써 자신의 영웅적 언행을 무장해야 하고, 집단 구성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할까?’라는 철학적 질문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장가르」에서 장가르와 흥고르가 구현해 낸 유토피아인 봄바국의 지향점, 즉 ‘죽음이 없고, 항상 25세의 젊음을 유지하고, 겨울의 추위가 없고, 고아가 없고, 개조차도 굶주리지 않아 먹을 것이 풍족한 세계’가 현실세계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영웅은 각자가 속한 집단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를 간파하고 그것들을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자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자를 어떻게 자기편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자여야 한다는 점은, 이 시대의 우리가 여전히 고민하는 철학적 주제이기 때문이다.

75) 허저족의 이마칸, 아이누의 유카르에서의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를 참조할 만하다. 최원오(2001), 『동아시아비교서사시학』, 서울: 월인, pp. 145-229.

76) 노로브냐(2019), pp. 89-97.

참고문헌

【자 료】

칼미크-오이랴드 민중 지음, 니콜라이 체데노비치 비트케예프 외 역음(2011),
유원수 주해, 『장가르 1』, 서울: 한길사.

(2016),

유원수 주해, 『장가르 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유원수 주해, 『장가르 3』,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黑勒·丁師浩 譯(1999), 『江格尒』 第三冊, 烏盧木齊: 新疆人民出版社.

_____ (1999), 『江格尒』 第四冊, 烏盧木齊: 新疆人民出版社.

_____ (1993), 『江格尒』 第一冊, 烏盧木齊: 新疆人民出版社.

_____ (1993), 『江格尒』 第二冊, 烏盧木齊: 新疆人民出版社.

【논 저】

김민아(2016),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에 나오는 ‘잔치’의 양상과 의미」, 『문
학과 종교』, 21 (1),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김석산 역(1976), 『베오울프 외』, 서울: 탐구당.

노로브남(2019), 「몽골구비서사시 토을의 문학적 성격과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연구」, 고려대학교 문화재협동과정 민속학전공 박사논문.

서대석(1999), 「동북아시아 영웅서사문학의 대비 연구」,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정준영(2018), 「『일리아스』에서 영웅적 자아의 aidōs와 행위패턴」, 『서양고전
연구』 제33집, 한국서양고전학회.

최원오(2004),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II) — 티베
트의 영웅서사시 <게사르>를 중심으로 —」, 『구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구비문학회.

_____ (2003),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I) —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를 중심으로 —」,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
비문학회.

_____(2001), 『동아시아비교서사시학』, 서울: 월인.

원고 접수일: 2019년 10월 10일

심사 완료일: 2019년 11월 7일

계재 확정일: 2019년 11월 7일

ABSTRACT

‘Heroic Codes’ and ‘Behavior Patterns’ in *Jangar*,
the Epic of Mongolia

Choi, Wonoh*

This paper discusses the heroic code and behavioral patterns of heroes in Mongolia’s epic, *Jangar*. ‘Heroic code’ refers to the mental and behavioral codes that heroes should have, and behavioral patterns refer to certain types of behaviors of heroe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heroic codes of the heroes in *Jangar* are variously identified by fame, identity, recognition, and competition, and the pattern of behavior shows the form of behavior by oneself or by others. Most heroic narratives deal with events that take place around one hero, resulting in a single ‘heroic code’. However, the reason why the ‘heroic code’ is so diverse in *Jangar* is related to the appearance of a number of heroes, including *Jangar*, Hongor, and Sawar. In addition, the heroes in *Jangar* are in the political system of Bomba, ruled by the monarch *Jangar*. Thus, it shows the pattern of arbitrary behavior according to the command of the monarch *Jangar*, or sometimes the pattern of arbitrary behavior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individual hero. This tells us that the heroic code, which refers to the spirit and code of behavior of the heroes in *Jangar*, is superimposed on the state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the individual. In addition, the heroic code works not only in a single relationship but in various relationships such as vertical relationship, horizontal relationship, and circular relationship. The reputation, essence, and recognition associated with *Jangar* are operated in a vertical relationship, the reputation associated with Hongor in a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 and the spirit of competition operates horizontally in both *Jangar* and his warriors. And *Jangar*'s fame is also seen in a circular relationship, which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feast'. A feast is a way of spreading the fame of *Jangar* and Bomba. Considering that *Jangar* is composed of 'feast-war-feast', *Jangar*'s fame is maintained and spread in a circular relationship commemorating peace without war and victory after war. In this way, the heroic code in *Jangar* is characterized by diversity and hierarchical character. Behavioral patterns also appear as arbitrary and arbitrary behaviors. In addition, *Jangar* has a variety of issues about heroes as it is called 'hero story about hero'. In that sense, *Jangar* is a treasure trove of heroic epic research.

